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4호 【루게 제24842호】 주제 104 (2015)년 3월 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2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2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성리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
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
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
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
기계, 배어링, 전력캐블, 전동
기, 변압기 등 주요원료제품
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
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기지, 미태과학자
기 등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보
내출 설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
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
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피워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
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2월계
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중
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
퍼올리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2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성리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
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
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
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
기계, 배어링, 전력캐블, 전동
기, 변압기 등 주요원료제품
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
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기지, 미태과학자
기 등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보
내출 설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
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
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설계원들이 첨단들과의 높은 목
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
리었다. 여러 발전소건설장들과
현대화대상들에 달려나간 이들
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현
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
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합동자동차기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집단적기술혁신운
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각종 전자
구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평

북창지구관공립합기업소에서

북창지구관공립합기업소에서
2월 석탄생산계획을 101%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톤의
석탄을 더 생산한것으로 된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
들이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불
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
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
워 예비체단장이 넉넉히 마련된
현실조건에 맞게 운반능력을 높
이고 기술공정관리를 잘 짜고
들어서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게 하
였다.
련합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
투쟁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감
과 동시에 각종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
에서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
한 투쟁을 꾸준히 벌린 결과 탄
광의 모든 갱과 증대들에서 생
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수 있
었다. 특히 2갱과 10갱의 탄부

석탄생산기공에서도 내부에
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새 기
술도입에 힘을 넣어 성능높은
총력발전기들을 많이 생산하였
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합동
연인자동차기구공장을 비롯
한 성리애 다른 공장들의 로
동자, 기술자들도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
키며 맡겨진 2월 인민경제계획
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회
안탄광이 앞장세웠다. 생산조
건은 불리하고 부닥치는 난관
이 많은데도 일군들이 자기 단
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
는 림장에 서서 석탄생산투
쟁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감
과 동시에 각종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
에서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
한 투쟁을 꾸준히 벌린 결과 탄
광의 모든 갱과 증대들에서 생
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수 있
었다. 특히 2갱과 10갱의 탄부

유환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서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
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
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
기계, 배어링, 전력캐블, 전동
기, 변압기 등 주요원료제품
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
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기지, 미태과학자
기 등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보
내출 설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
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
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에서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
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검덕지구와 단천지구를 비롯
한 10여개 중요대상공사를 맡
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련
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
술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과
감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 2
월에도 일자리를 크게 내었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일
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
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인보탄광 3갱, 송남청년탄광
1갱과 3갱의 탄부들도 당중앙
위원회의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
위원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공
동주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생산성과
를 높여 2월전투를 승리적
으로 결속하였다.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많은 탄차와 탄
광설비부속품을 생산하여 중
산투쟁으로 들끓는 련합기업소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에서 뜻깊은 2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성리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
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
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
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
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
기계, 배어링, 전력캐블, 전동
기, 변압기 등 주요원료제품
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
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특히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기지, 미태과학자
기 등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보
내출 설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
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
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청천강화력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
과 로동계급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중산투쟁
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
깊은 2월 전력생산계획을 빛
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주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중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
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기계, 배어링, 전력
캐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원료제품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
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
를 내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청천강계
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
기지, 미태과학자기 등 중요
대상설비생산에 보내출 설
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
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분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
에 기여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유리한 생산조건이 갖추
어지

으로 성과를 확대하였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
들은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화선의
지휘관들처럼 돌파구를 앞
에서 열어나가며 높은 공사
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화선시정적사업
을 전투현장에 바
라보아들이고 경제선
들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린 결과 계획수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
작기계, 배어링, 전력캐
블, 전동기, 변압기 등 주
요원료제품이 성과를 거
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는 2월에 주요대상
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를 내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특히 청천강계
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기지, 미태과학자
기 등 중요대상설비
생산에 보내출 설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
공업관리국
1.4분기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
에 기여
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유리한
생산조건
이 갖추
어지

발전소에서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중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2월 전력
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주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중요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
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행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기계, 배어링, 전력
캐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원료제품이 성과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
는 2월에 주요대상설비생산
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
를 내걸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청천강계
단식발전소, 서리포지 축산
기지, 미태과학자기 등 중요
대상설비생산에 보내출 설
비, 자체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업소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기계
공업관리국
1.4분기
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
행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
에 기여
하였다. 특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유리한
생산조건
이 갖추
어지

전자공업성에서

전자공업성에서 2월 인민
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으로
134%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리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의 혁신적투
쟁에 의해 각종 전자설비들과
기구들이 많이 생산되어 청
천강계단식발전소와 미태
과학자기건설장들을 비롯
한 중요대상설비생산과 현대
화물들을 넘쳐 생산한 것
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
분기계획을 한달이상 앞
당겨 수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
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
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전자공업성에서

전자공업성에서 2월 인민
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으로
134%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리애 각기
공장, 기업소들의 혁신적투
쟁에 의해 각종 전자설비들과
기구들이 많이 생산되어 청
천강계단식발전소와 미태
과학자기건설장들을 비롯
한 중요대상설비생산과 현대
화물들을 넘쳐 생산한 것
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 1.4
분기계획을 한달이상 앞
당겨 수행함으로써 성적인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특
히 평양 3.26 전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
리한 생산조건이 갖추어지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회
안탄광이 앞장세웠다. 생산조
건은 불리하고 부닥치는 난관
이 많은데도 일군들이 자기 단
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
는 림장에 서서 석탄생산투
쟁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감
과 동시에 각종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
에서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
한 투쟁을 꾸준히 벌린 결과 탄
광의 모든 갱과 증대들에서 생
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수 있
었다. 특히 2갱과 10갱의 탄부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평양식료련합기업소에서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회
안탄광이 앞장세웠다. 생산조
건은 불리하고 부닥치는 난관
이 많은데도 일군들이 자기 단
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
는 림장에 서서 석탄생산투
쟁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감
과 동시에 각종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덕탄광
에서 석탄생산은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
한 투쟁을 꾸준히 벌린 결과 탄
광의 모든 갱과 증대들에서 생
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수 있
었다. 특히 2갱과 10갱의 탄부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전국 행정 책임 일군들 무포속영지와 대흥단일대 답사

【대흥단 3월 4일발 조선
중앙통신】 백두산지구 혁명전
진사업군에 참가하고있는 전
국행정책임일군들이 4일 무
포속영지와 대흥단일대를 답사
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28(1939)년 5월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전선의 길에서 승영하시
었던 무포속영지를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
민혁명군 지휘관들의 소집
장이고 대흥단지구전투를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
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사령부자리와 백
두의 내장군 김정숙동지
께서 남으신 자리, 우등
불자리들을 돌아보았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력사적사명감을
지니시고 항일대전의
피바다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백두산전설
제위인들의

고귀한 발자취와 항일유적
대원들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중
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2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
쳤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
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동주호
의 정신을 높이 받들
고 중요대상설비
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계획수행
기간 성적인
발전기, 탄탄,
공작기계,
배어링, 전력
캐블, 전동
기, 변압기 등
주요원료
제품이 성과
를 거두었다.
성립업들은
평형성립을
맞는 2월에
주요대상
설비생산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목표
를 내걸고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
들었다. 특히
청천강계
단식발전
소, 서리포
지 축산기
지, 미태
과학자기
등 중요
대상설비
생산에 보
내출 설
비, 자체
생산에 주
되는 힘을
넣고 해당
공장, 기
업소에
생산조
건을 보
장해주
기 위해
애로와
난관을
뚫고
전기
기계
공업
관리
국 1.4
분기
기
계획
을
한
달
이
상
앞
당
겨
수
행
보
여
서
성
적
인
계
획
수
행
에
기
여
하
였
다.
특
히
평
양
3.26
전
진
공
장
일
군
들
과
로
동
계
급
은
유
리
한
생
산
조
건
이
가
투
우
어
지

이 끌어주시는 철세위인의
업적을 체득하였다.
전국 행정 책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혁명선열들의 애국의
눈이 깃들여있는 항
일전투들에 대한
답사를 혁명전
통학들의 뜻깊은
계기로 삼으며
행군길을 다
그쳐 대흥단
혁명전진
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무산지구
전투승리기념
탑에 높이
모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바치기
위하여
비밀의
길을
찾아
나서
고
있
다.
무산지구
전투를
지휘하시
는 20대
청년장
군의 모
습을 우
리더
며 숭고
한 영
웅의
모
습을
답
사
행
군
대
원
들
은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항
일
의
내
성
영
웅
김
정
숙
동
지
의
영
상
을
모
신
모
자
이
크
비
화
하
여
해
설
을
들
고
전
적
의
여
러
곳
을
돌
아
보
았
다.
조국과
인민
의
운
명
에
대
한
숭
고
한
력
사
적
사
명
감
을
지
니
시
고
항
일
대
전
의
피
바
다
만
리
를
헤
쳐
조
국
해
방
위
업
을
승
리
로
이
끄
신
백
두
산
전
설
제
위
인
들
의

의 모습은 기념탑의
대흥부주제
부각군상과
함께 그들의
가슴
마다
에
깊
이
새
겨
져
있
다.
이날
답사
행군
대원
들은
무
봉
로
동
자
주
변
에
천
막
을
전
개
하
고
속
영
하
여
항
일
투
쟁
사
람
자
들
의
희
생
과
희
망
의
기
를
기
억
하
고
모
임
들
을
가
졌
다.
그들은
회상
기
《백
두
의
신
념》, 《보
천
보
전
투》, 《조
국
에
로
진
군
하
는
길
에
서》
대
한
발
표
모
임
에
서
백
두
의
혁
명
정
신
은
우
리
당
과
혁
명
의
력
사
적
부
들
이
무
산
지
구
전
투
를
지
휘
하
신
것
을
심
장
에
기
억
하
고
있
다.
그들은
죽
어
도
혁
명
정
신
을
버
리
지
않
는
강
의
정
신
을
지
니
고
역
전
만
대
시
일
어
나
원
수
를
저
부
린
항
일
투
쟁
의
배
경
을
기
억
하
고
있
다.
이
러
한
강
성
국
가
건
설
에
서
혁
명
의
지
휘
정
신
을
기
억
하
고
있
다.
그들은
위
대
한
수
령
님
들
께
서
가
게
하
고
승
리
의
한
길
로
이
끌
어
오
신
주
체
혁
명
위
업
을
빛
나
게
세
우
려
나
고
계
시
는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의
선
군
정
신
을
체
득
하
고
있
다.
답사
행군
대
원
들
은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항
일
의
내
성
영
웅
김
정
숙
동
지
의
영
상
을
모
신
모
자
이
크
비
화
하
여
해
설
을
들
고
전
적
의
여
러
곳
을
돌
아
보
았
다.
조국과
인민
의
운
명
에
대
한
숭
고
한
력
사
적
사
명
감
을
지
니
시
고
항
일
대
전
의
피
바
다
만
리
를
헤
쳐
조
국
해
방
위
업
을
승
리
로
이
끄
신
백
두
산
전
설
제
위
인
들
의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1.4분기 배수리계획 넘쳐 수행

합동남도협동수
산경리위원회에서
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 한 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
키는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강현식, 리락군동
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배수리
를 높이 세우고 조지식과 총화
사업을 간지워 하면서 어로
공들을 위호함으로써 힘있게
고구추 동하고있다. 도협동수
산경리위원회에서는 1.4분기
간으로 수 배척에 달하는 모든
배를 들이기 위한 사업과 조
리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
백히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면 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최후승리의 불
길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과 학 기술 전 당 건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군 민 결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려나가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시는 이 땅우에 황금벌의 새 역사를 빛내여나가자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사회주의대지에 승리의 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69돐을 맞으며 제땅을 잃으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것을 더욱 뼈저리게 새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지에 승리의 만세소리를 높이 울려 황금벌의 새 역사를 빛내여나갈 일념으로 알곡증산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기름진 땅에 알찬 이삭 주렁주렁이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불철영농진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농장일군들은 전식량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던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기魄으로 알곡증산투쟁을 벌릴 목표를 세웠다. **주목되는것은** 땅이 기름져야 총알같이 땅밖으로 나가는 쌀의 실적을 채울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작전하며 안정하게 실천해나간다는것이다.

논바 정보당 10t이상의 수확고는 비료가 아니라 지력으

로 담보된다. 농장일군들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아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나갔다. 필지별로 따져가며 유기질비료를 실어넣어 사실을 높고보자. 정보당 10t이상의 논벼생산량이 농장일군들의 평균생산량이라 모든 포전의 수확고로 되게 하여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이런 기준을 세우고 필지별논벼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10t이상의 소출을 내지 못한 필지들에 정보당 4t이상의 유기질비료를 정화하여 내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 토지정리를 한 포전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을의 결실은 달랐다. 계획대로 유기질비료를 실어넣었지만 오히려 지력이 낮은 제4작업반 포전의 수확고와 유량률이 낮았단것이다. 따져본 결과 부식질함량에서 차이가 났다. 비결은 다른 작업반과 달리 순수 진거름과 도시오수를 따로 확보하여 실어넣고 있었다.

이것은 토양의 특성에 맞게 부식질함량을 높일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내야 어느 필지에서나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교훈이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과학적으로 지력상태를 정확히 밝혀 그에 맞게 토양개량대책과 유기질비료를 주는 체계로 세울 결

심을 굳혔다. 성과의 예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대중에게 있는 법이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관계에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유기질비료를 주는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내어 필지에 넣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필지별로 어떤 영양원소를 어느 정도 보충해야 정보당 수확고를 10t이상 높일수 있다는 과학적인 방도들을 찾아내었다. 그에 따라 작업반에서 필지별로 부족되는 영양원소들을 충분히 보충할수 있게 유기질비료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작업반에서 필지별유기질비료생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 거름원질이 적었지만 필지별로 벌 유기질비료만은 집짐승배설물, 진거름, 도시오수를 가지고 생산하여 정확히 양을 내도록 요구를 높였다. 조직사업은 은이 났다. 작업반에서 필지별로 따져가며 세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어넣기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미생물을 리용하여 지력을 높일 방도를 찾고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것도 혁신적이다. 일군들은 거름원질이 적은 조건에서 미생물을 증식시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우선 리오군과 초무연탄으로 토양산도를 낮추고 토양속에 있는 영양원소들을 식물이 흡수할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논벼농사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갖추자면 모든 포전에 여가자 토양개량제를 많이 넣어 뿌려가 내릴수 있는 깊이까지 토양산도를 원가라 든다. 그러나 초무연탄과 미생물을 함께 리용하면 토양산도를 낮출수 있다. 초무연탄속에 있는 리오군의 좋은 먹이원천으로 되었다. 그리고 리오군은 땅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토양속에서 리오균은 리오화합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리용할수 있게 해준다.

일군들은 이런 특성을 리용하여 땅에서 나오는 물에 리오균을 더 보충해주고 그것을 초무연탄과 혼합해서 얼음동반 배양기로 후처리하여 정보당 1~3t정도 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에 버무리개운병의 피해위험성이 있었던 제1작업반에서 높은 수확을 낸 경험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필지별수확량에 따라 생산하여 대가중에 있는 짐승을 땅속에 잡아 식물을 흡수할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이도록 하였다.

집짐승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에도 힘을 냈다. 일군들은 이탄을 리용하여 토양산도를 낮추고 토양속에 있는 영양원소들을 식물이 흡수할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논벼농사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갖추자면 모든 포전에 여가자 토양개량제를 많이 넣어 뿌려가 내릴수 있는 깊이까지 토양산도를 원가라 든다. 그러나 초무연탄과 미생물을 함께 리용하면 토양산도를 낮출수 있다. 초무연탄속에 있는 리오군의 좋은 먹이원천으로 되었다. 그리고 리오군은 땅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토양속에서 리오균은 리오화합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리용할수 있게 해준다.

다. 농장에서는 축산에 힘을 넣어 축산작업반, 비육분조, 농장원세대들에서 나오는 집짐승배설물을 모두 수거하여 유기질비료 혼합비료를 만들어 논에 내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였다. 그것은 운반량을 줄이면서 필요한 영양원소를 종합적으로 보충해줄수 있는 방도이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생산기지를 꾸민데 맞게 리피토, 고의석, 갈탄리력 등 각종 원소들이 들어있는 토양개량제들과 집짐승배설물, 미생물들을 확보하여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알비리공장을 힘있게 내밀어 리오균의 좋은 먹이원천으로 되었다. 그리고 리오균은 땅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토양속에서 리오균은 리오화합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리용할수 있게 해준다.

이밖에도 일군들은 정보당 20t의 정출을 얻기 위하여 논에 유체를 실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종자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모내기전에 갈아엎을수 있게 씨뿌리기계를 바로 정하고 씨뿌림을 기술적으로 구대로 내밀도록 임명하게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은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기 위해 대단원들의 넘쳐나기 땅을 영원한 사회주의대지로 바꾸어 나간다는 자각을 가지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안정하게 내밀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곡산군 평양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야 합니다.»** 곡산군 평양협동농장의 일군들이 지난해보다 높은 새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던 때였다. 사실 농장의 자연기후조건이나 토양특성을 보면 농사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었다. 년평균기온도 서해협곡지대보다 낮았고 포전들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더우기 등반에 위치하고있으나니 거름원천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모든 포전을 기름진 옥도로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높은 새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로 하였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고심하던 관리위원장 류명금동무는 일군들과 함께 농장원들에게 물었다. 그 과정에 이 지방에서 오래 생활한 로인들의 의견에 주목을 돌려게 되었다. 유기질비료원료로 저수지바닥흙을 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농장은 2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설된지 오래지 않았다. 그러나 살림집들이 있던 자리였기때문에 비탈에는 농작물생육에 좋은 질소를 비롯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을수 있다는 것이였다. 정말 저수지바닥 흙을 파보니 시꺼먼 흙이 40~50cm의 두께로 깔려있었다. 해당 부문의 관계자들에게 분석해본 결과 영양분함량이 매우 높았다. 이것으로 얼마든지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수 있었다. 신심이 생긴 일군들은 다른 저수지바닥도 파보았다. 그곳에도 역시 얼마 가지 않은 곳에 몇십년 짙은 흙이 있었다.

이것은 이전에 비해 많은 로력과 운반수단,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지력을 훨씬 높일수 있는 좋은 유기질비료원천이었다. 일군들은 제3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다음 저수지바닥흙을 현장지휘부를 전개 하였다. 그리고 모든 전력량을 저수지바닥흙파기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온 농장이 저수지바닥흙파기에 들끓었다. 결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천톤의 저수지바닥흙을 마련하여 땅을 기름지게 할수 있게 되었다. **황철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사자비를 잘하고있다. -연탄군 수봉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기름진 옥도로 만들자

모든 포전을 기름진 옥도로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높은 새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로 하였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고심하던 관리위원장 류명금동무는 일군들과 함께 농장원들에게 물었다. 그 과정에 이 지방에서 오래 생활한 로인들의 의견에 주목을 돌려게 되었다. 유기질비료원료로 저수지바닥흙을 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농장은 2개의

기름진 옥도로 만들자

저수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설된지 오래지 않았다. 그러나 살림집들이 있던 자리였기때문에 비탈에는 농작물생육에 좋은 질소를 비롯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을수 있다는 것이였다. 정말 저수지바닥 흙을 파보니 시꺼먼 흙이 40~50cm의 두께로 깔려있었다. 해당 부문의 관계자들에게 분석해본 결과 영양분함량이 매우 높았다. 이것으로 얼마든지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수 있었다. 신심이 생긴 일군들은 다른 저수지바닥도 파보았다. 그곳에도 역시 얼마 가지 않은 곳에 몇십년 짙은 흙이 있었다.

운행길과 피즐기

이곳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우선 사상교양사업은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잘 짜고들어 종업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도록 단위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이 사업소의 운전사들은 당사자들과 함께 거의 한해로 로상에서 보내다니 일과생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하여 그들의 사상정신생활에 공백이 생길수 있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옮겨 해결하였다. 물론 운전사들이 사업소에 돌아오면 그간 미진된 학습과제를 자체로 보충하게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문당에서 강령철동무는 그런 순위를 방법을 택

피즐기

강지와 보충강의를 통해 모든 운전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상적으로든 충분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자니 많은 품과 시간이 들었다. 두세명 씩의 한명을 대상으로 학습강의와 강연은 진행할 때도 있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운전사들 모두가 백두산건설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당정책을 완히 깨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대 교양과 관련한 학습자료들을 카드로 만들어 운전사들과 종업원들이 학습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문당위원회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교양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보다 창조적으로 심화시켜나갔다.

백두산기술에 이런 전투력있는 당조직이 있다

량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 답사차사업소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그 하나가 일군들이 운전사와 함께 차를 타면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운전사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투사들과 대담회에서 배우는것을 통하여 심정으로 충정의 운명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이 교양사업의 실효는 컸다. 부처시 강연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답사차 진행될 때마다 운전사들과 함께 운명길을 달리며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격조 높이고 이끌어갔다. 백두산기지에서 산다고 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저력을 무장되게 하는 것이다. 수평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전사들의 뜻을 이어 언제나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이 운명길은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명맥과 잇닿아 있는 피줄기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자. ... 일군들은 운명길의 어려움과 고비를 함께 넘고 헤쳐며 운전사들의 심장을 이렇게 격동시키곤 하였다. 이렇게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한 결과 몇몇에선 이 한 구역에 서 뜻하지 않게 산골이 일어났을 때 종업원 모두가 떨쳐나

오늘의 빨찌산작식대원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을 종업원들의 정신력배양의 중요한 열쇠로 들어주었다. 우선 후방사업자료를 잘 짜고 들었다. 물론 지난 시기에 꾸러 놓은 후방기자들이 있었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많이 하였다. 로력문제와 계절 길면 고려였다. 종업원들의 절반이 사시정철 로상에 있는 운전사들이라 그들을 동원할수 없었던것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강연철동무는 종업원들의 안해들로 가족순회를 조직할것을 발의하고 이 사업을 짜고쳤다. 그는 새로 조직된 가족순회대

온성군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다수확포전과 중자

다수확포전과 중자

땅에 대한 하담은 추어를 불러일으켜주는 3월, 소중한 이 땅을 또다시 빼앗으려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대적도 분노의 치를 때는 이 시각 온성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씨뿌리기 준비에 더욱더 바차를 가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한일합일의 중자가 다 그대로 총알처럼 어른이삭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중시하고 작전과 실천을 면밀하게 해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중자문제를 중요하고 고리로 틀어쥐고 중자문제해결에 선착자문제를 돌려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풍년만 가리려는 높이 쌓자면 씨뿌리기의 첫 공적인 중자처리부터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다수확은 중자에 시작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군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 이룩한 알곡생산성과 경험을 놓고 사색과

분석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고농도후민산비료로 중자치리를 진행하여 덕을 본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군에서는 이미 여러해전부터 농업과학원 함경북도농업과학원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지방에 흔한 풍화탄으로 고농도후민산비료를 만들어 밀비료와 잎비료로 리용하고있었다.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자 군에서는 지난해에 고농도후민산비료에 의한 중자치리방법을 60%의 종자에 받아들였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다. 싹트기유기를 훨씬 높이고 싹트는 기일도 2~3일이나 앞당겨졌으며 초기생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알곡증산성과도 이어졌다. 경험은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품종배치를 정확히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중자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알곡생산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었고 있다. **다수확포전은** 종자를 메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군들은 올해에 고농도후민산비료로 모든 종자를 100% 처리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원료확보와 생산준비를 단계로 내밀었다. 여기서 잘한것이 있다. 우선

원료확보를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한것이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에 금강약물을 리용하였다. 그 금강약물은 많은 경우 도에서 보장받았고있다. 하지만 올해에 생산목표를 높이 세울것만은 우선 보장해주기만은 없어서 기다릴수 없었다. 일군들은 해당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금강약물을 대신할수 있는 원료를 찾아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결과 군의 어느 한 지역에 흔한 풍화탄을 리용하면 금강약물을 필요도 없고 고농도후민산비료의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즉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450t의 고농도후민산비료생산에 필요한 용화탄을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확보해놓았다. 일군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에 맞게 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어놓도록 하였다. 군유기질비료공장에 원동기를 놓기 위하여 주이 풍화탄과 용화탄을 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목표가 뚜렷하고 작전이 면밀한 전투는 승리하기마련이다. 지금 군에서는 매일 10t이상의 고농도후민산비료를 생산하여 중자치리준비가 잘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광포 오리 공장에서

은도보장, 감람과 모래확보, 이것은 광포오리공장 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의 축산물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였다. 금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닭의 령도말에 이미 꾸러진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읍니다.»** 금강에서의 생산성은 알맹이 유실수율과 새끼오리기에 많이 관계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온도를 정확히 보장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끼오리는 체온조절기능이 약하여 일정한 기간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생산준비에서 틀어쥐고

다닥 붙도록 하였다. 여름철에는 호수의 물이 흐르고있어 아무리 많은 물을 들여도 실적이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발육에 지장을 준다. 알맹이 역시 온도보장 정도에 따라 수율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로 무동력보일러에 의한 온도보장체계를 세웠던것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감람을 충분히 확보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비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오리가 즐겨먹는 감람을 배합하여 보충해주면 축산물생산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호박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찾았다. 또한 령력을 충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조상전래의 풍습도 인민들의 생활감정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가 될수 없습니다.》

민족명절인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어제 출퇴근길에서, 일터와 마을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예일 달이 환히 뜰까요?》...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이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한해중 제일 크고 밝다고 하는 대보름달에 쏠린다.

민족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달에 우리 인민은 활짝미소를 띠고, 참기름, 밤, 대추, 잣 등을 골고루 섞어 쪄낸 영랑가래는 약밥과 오곡밥, 9가지 마른나물만찬, 찐, 복쌈 등 맛있는 명절음식을 해먹었다. 부름끼리하는 글은 열매를 먹는 관습도 있고 왜불놀이, 쥐불놀이, 연피르기, 바둑장기기를 비롯하여 오랜 세월 전해져오는 여러가지 민속놀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월대보름명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풍습은 달맞이이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음력 1월 보름달 저녁이면 자기 고향마을의 주변언덕이나 산에 올라 정월대보름달을 등안하는 풍습을 지켜오면서 정서적인 생활을 하여왔다.

올해의 정월대보름 전날인 작은보름 점심에 국수를 맛있게 들면서 매일 아침엔 귀밝이술도 한잔씩 하자고 못내 흥겨워하는 남정네들도, 대보름 민속명절을 새 옷가지 음식감들을 사들고 돌아오는 녀인들도

위대한 시대의 전변과 함께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

레일 저녁 대보름달이 환히 뜰것인가 달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운것은 바로 그레서이다.

《아마 뜨뜻지!》라고 배로 유한 대답을 하는 로인들도 있고 정월대보름달맞이를 동무들과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달이 환히 안뜨면 어쩌나 하고 벌써부터 발을 동동 구르는 처녀들도 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달이 환히 뜨고 안뜨고는 그때 가서 불일이고 달맞이를 어디에 가서 하려는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하는 방직공녀들에게 달구경하러 어디에 가려는가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변에 일떠세워주신 우리 로동자합작의 제일 높은 층에 올라 달맞이를 하겠습니다.》 금시 눈앞에 훌륭하게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작이 안겨온다.

지난 시기에는 대보름날 저녁이면 모반범이 대성산 등 시안의 마을에 드는 것을 향하여 사들러 거던 방직공녀들이 올해는 공평같은 보급지인 자기네 로동자합작의 층계를 척척 올라 온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달구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진실의 위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수도의 만수대언덕과 공평도시 합흥의 동흥산언덕을 비롯하여 뜻깊은 곳에 가서 정월대보름의 달맞이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녀년의 약산전대와 동해의

그 달속의 계수나무를 찍어다가 초가삼간을 짓기 바란 사람들도 있고 달나라 옥토끼가 쟁쟁하다는 약궤리의 약을 얻어다가 앓고계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싶어한 사람들도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절절한 소원들이 정녕 풀리었다.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고 돌보는 손길이 어저 어저 하는 먼곳에 떠있는 달에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엮을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해방전의 한 시인은 정월대보름달의 달맞이명경을 두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정월대보름달 달맞이 달맞이 달마중을 가져고 새라 새운은 같이일고도 가수엔 목은 설음 그대로 달맞이 달마중을 가져고!

한해 또 한해 대보름달을 보며 빌고일어도 종시 풀어야 풀수 없었던 마음소원들을 우리 인민은 과연 어떻게 풀게 되었는가.

인간의 참된 존엄과 행복, 아름다운 미래! 정녕 인민의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준것은 정월대보름달의 밝은 달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아니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이 땅위에 철저히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도록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크고작은 소원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한층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오랜 갈망정서가 깃든 생활풍습 하나도 귀중히 여기시며 대대손손 발양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의 정신을 정히 받들고 활짝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오늘도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그 풍습을 지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달맞이를 하러 갈 준비를 서두를것이다.

과학자주력지부와 은하과학자거리, 평양음악원과 평양에속된에서도 펼쳐지리라.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은 곳곳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젊세워인원 혁명의 진두에 꼴세 모시고 해마다 거창한 전변을 이룩해가는 희열과 향만,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며 정월대보름의 즐거운 저녁을 보내려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명절인가.

《이해의 대보름달맞이는 구름우에 등실 솟은 우리 집에 착 앉아서 하지는것입니다.》

결작인 그의 이야기에 우리 가슴도 한껏 부풀다. 그 얼마나 장편이랴.

그런 모습들이 김일성종합대학교 육사살림집이 있는 흥흥네거리에서도, 은정구역의 위성

반반년의 유구한 력사속에 있어본적 없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희한한 전변을 거울처럼 환히 비쳐 온 세상에 전하여다오.

본사기자 허명숙



-창건거리에서- 본사기자 찍음

민족의 재보를 떠받드는 주추들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유산들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의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소장 김철만동무와 종업원들은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맡은 일을 주인답게 책임지고 해나가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력사유적들에 대한 관리사업에 헌신의 뜻을 바쳐가고있는 작업반장 고일남동무와 유영철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 문화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일터에서의 지혜를 합쳐가는 작업반장 양영일동무와 양정수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 수십년간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온 김석초동무는 또 어떠한가.

어느해 여름 깊은 산중의 한 절간을 보수할때 대한 과정이 계기되었을 때였다. 당시 당세포로서 일하던 김석초동무는 그 과정을 자기 책임지고 작업반원들과 함께 해낼것을 결심하였다. 기와며 목재, 진흙 등 자재를 등에 지고 절간이 자리잡은 곳으로 가지나 몸치 험거웠다. 목에

날로 꽃피는 우리의 민족풍습

주 부 의 기쁨

정월대보름도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쇠여온 민족명절이라는 점에서 민족명절이 바뀐 것은 가장주부들이다.

사리원시 신동 2동 60인민반 최은실동무도 그런 주부들중 한 사람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이 곳을 찾으면서 성을 아주 잘 쌓았다고, 우리 선조들은 기교도 없이 이런 큰 성을 쌓았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애국심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어머니수령님의 유언이 되새겨졌다.

김석초동무는 조용히 되였다. 《저 성벽도 주추들이 든드레야 굳건한것이 아니겠소. 나도 한생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을 떠받드는 주추들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음뿐이요.》

이것은 관리소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지난해 10월 경에 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관리소의 종업원들은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로 심장을 끓여왔다.

그 불타는 열의는 오늘 시안의 문화유적들을 찾아 걷고 또 걷는 관리소종업원들의 실연으로 적극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현정철

대 가정의 불리, 미덕의 향기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순천시 강안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애군인 정일영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애매한 인민보안원들이 김성식, 서철남, 장성철동무들이 영애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진땀이겨 겨울방학을 왔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영동무의 눈앞에는 새 옷을 주어진 것밖에 없었다.

10여년전 특영애군인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토록 기뻐하며 예기웃들과 산모의 영양제까지 한가득 안고와 축하해주던 날들이며 그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아들이 유치원과 소학교를 거쳐 금성제1중학교에 입학하던 일...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순천시 강안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애군인 정일영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애매한 인민보안원들이 김성식, 서철남, 장성철동무들이 영애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진땀이겨 겨울방학을 왔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영동무의 눈앞에는 새 옷을 주어진 것밖에 없었다.

10여년전 특영애군인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토록 기뻐하며 예기웃들과 산모의 영양제까지 한가득 안고와 축하해주던 날들이며 그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아들이 유치원과 소학교를 거쳐 금성제1중학교에 입학하던 일...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순천시 강안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애군인 정일영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애매한 인민보안원들이 김성식, 서철남, 장성철동무들이 영애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진땀이겨 겨울방학을 왔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영동무의 눈앞에는 새 옷을 주어진 것밖에 없었다.

10여년전 특영애군인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토록 기뻐하며 예기웃들과 산모의 영양제까지 한가득 안고와 축하해주던 날들이며 그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아들이 유치원과 소학교를 거쳐 금성제1중학교에 입학하던 일...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순천시 강안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애군인 정일영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애매한 인민보안원들이 김성식, 서철남, 장성철동무들이 영애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진땀이겨 겨울방학을 왔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영동무의 눈앞에는 새 옷을 주어진 것밖에 없었다.

10여년전 특영애군인이 아들을 보았다고 그토록 기뻐하며 예기웃들과 산모의 영양제까지 한가득 안고와 축하해주던 날들이며 그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아들이 유치원과 소학교를 거쳐 금성제1중학교에 입학하던 일...

《우리도 학부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순천시 강안동 63인민반에 사는 영애군인 정일영동무의 집으로 순천시인민보안서 애매한 인민보안원들이 김성식, 서철남, 장성철동무들이 영애군인의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진땀이겨 겨울방학을 왔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들을 보는 정일영동무의 눈앞에는 새 옷을 주어진 것밖에 없었다.

제30차 평양건축종합대학교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0차 평양건축종합대학교과학기술축전이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였다.

건축,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 건축공학, 건설공학, 건축재료, 건설기법, 정보기술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학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학에서는 전설에서 대변영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핀란드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강릉의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6일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시였다.

강릉의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6일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시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시였다.

강릉의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월 26일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시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짜슬리 니이니스티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시였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쏘고있단다. -정일영동무중학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아름다운 나의 미래

이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치료를 잘해서 대치를 확보하게 해보겠다며 여러가지 약제들과 함께 로인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도 해주고 병마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심심도 얻어주면서 로인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제인가 텔레비전수상기가 고장나 일터내로로인인 안타깝고도 안타깝다는 것을 알고 장려금동무는 딸이 아버지의 고충을 보면서 가만있었다는가고 하며 남편과도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것이였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음 듣음이내데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머니가나 건강을 받으며 살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조국해방 70돐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휘황한 전성기가 펼쳐지던 2005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은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리행해나가기 위한 해내의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안아온 자랑스런 결실이며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는 일대 사변이었다.

북과 남, 해외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 정당들과 각종 단체, 인사들을 광범하게 망라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북남선언리행을 명실공히 전면적운동으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결성 이후 북, 남, 해외의 공동통일행사와 다양한 반대활동들을 통하여 6.15통일열풍을 세계적으로 북남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왔다.

오늘 내외의 반동세력들에 의해 북남선언이 부정되고 그 의 소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열어놓은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모두 막히고 격계와 대결의 장벽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전쟁의 위험은 더욱더 짙어가고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걸어온 투쟁과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들어 올려보면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을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7.4공동성명과 협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현장,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실천해나갈것이다.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응축되어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데로써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

남북공동선언리행, 반전평화수호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선구자가 되자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호소문 발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여 2월 26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조국해방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는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결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민족공멸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충격을 반대하며 전쟁의 근원을

대립을 격화시키는 군사연습 중지하라

재일동포단체들 도쿄에서 항의투쟁 전개

《제일한국민주주의연립》, 《제일한국청년동맹》, 《제일한국민주주의회》, 《제일한국학생회의》가 2월 23일 일본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키 리츠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북에 대한 핵전략적 위협을 위한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대규모훈련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립을 격화시키고 파멸을 가져오는 미군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호소문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및 수공예품전시회

로씨야와 몽골에서 진행

김정일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및 수공예품전시회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로씨야 나흐도크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상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붉고흰색의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어있었으며 그 향연에 우리 나라와 로씨야가 함께 걸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성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선출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 선군조건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를,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에는 로씨야 나흐도크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나흐도크에서 부시장 두프코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행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단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셨다. 또한 로씨야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2015년은 로조선의 해이다. 우리는 조선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로씨야방방공산당 연례대회 나흐도크시위원회 제1비서 겐레노브는 로씨야의 조국전쟁승리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지난 2월 1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은 선군대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호모심의를 환출영 만민발한 김정일화들로 불꽃처럼

전쟁을 초래하는 불량반소동을 규탄한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항의투쟁 전개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남조선전지역에서 남조선 전지역에서 항의투쟁이 벌어졌다.

50여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이날부터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맞춤형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의 공습적목적이 참가하는것만 놓고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것임을 잘 알수 있다고 규탄하였다.

북의 《금편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것은 남북 군사연습을 벌여놓는것은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에 역행하는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긴장을 조성하여 미국의 패권지위를 보강하기 위한것이라고 달리는 불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평통사소속 단체들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경기도 부천 등 전지역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부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부산항과 진해군기지에 있어서 가진 기자회견들에서 년초에 조성되었던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미국의 방해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합동군사연습에 새로 조차된 남조선미군합참사단이 참가하는것은 북에 대한 《검열적

단편 짜증난 상전, 뽀뽀맞은 하수인

얼마전 백악관이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를 호되게 비난하였다. 네타냐후가 미행정부의 중에도 받지 않고 미국회에서 이란핵협상과 관련한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미국기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이 나서서 네타냐후의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것이라고 위협하고 지어 오마라는 네타냐후가 워싱턴을 방문하러다 만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과의 《고교친 동맹관계》를 제창하며 살갑게 돌아온 네타냐후로서는 역할을했지만 상전의 심리적으로도 헤아릴줄 모르는 미련한 하수인이요 그것은 너무도 엉망이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염병 교해

그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환자를 격리시키고 위생선전을 강화하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말라리아

부룬디에서 말라리아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2월 19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에 걸친 473만 1986명의 말라리아환자가 등록되었으나 그중 236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들중 대다수가 어린이들과 임신부들이라 한다.

국제여론의 초점으로 된 로씨야국방상의 3개국방문

얼마전 로씨야국방상 쇼이구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였다. 그의 방문은 국제여론의 초점으로 되었다.

정세전문가들은 로씨야국방상이 3개국방문과정에 군사협력 확대문제를 토의하며 주목을 돌리려는 이것은 반로씨야군사적압박도를 높이고있는 미국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대응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의 라틴아메리카와 방방은 미국에 있어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 로씨야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바짝 조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다면 로씨야가 미국을 견제압박하는것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시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반제국주의적 경향이 거세어져가고있는것이 판된다. 라틴아메리카는 어제날의 미국의 《고요한 뒤등산》이 아니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있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는 이 나라들보다도 반제국주의의식이 강한 나라들이다. 이것이 로씨야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군사협력을 확대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이 나라들은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동반자, 협조자를 돌리려는 이것은 반로씨야군사적압박도를 높이고있는 미국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대응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의 방방은 미국에 있어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 로씨야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바짝 조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다면 로씨야가 미국을 견제압박하는것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시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반제국주의적 경향이 거세어져가고있는것이 판된다. 라틴아메리카는 어제날의 미국의 《고요한 뒤등산》이 아니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있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는 이 나라들보다도 반제국주의의식이 강한 나라들이다. 이것이 로씨야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군사협력을 확대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이 나라들은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동반자, 협조자를 돌리려는 이것은 반로씨야군사적압박도를 높이고있는 미국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대응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의 방방은 미국에 있어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 로씨야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바짝 조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다면 로씨야가 미국을 견제압박하는것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시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반제국주의적 경향이 거세어져가고있는것이 판된다. 라틴아메리카는 어제날의 미국의 《고요한 뒤등산》이 아니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있다.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규탄하는 모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오스트리아의 원에서 지난 2월 25일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규탄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참가자들은 정성을 재택하여 지난해 12월에 미국외향성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의해서 폭로된 중앙정보국의 체포 및 고문만행이 미행정부의 항시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해주고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미국에게발처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국가

부더기비해

브라질에서 지난 2월 25일 부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강풍을 동반한 부더기비로 산악지역에서 큰물이 나와 교량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또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워 넘어지면 서 전기줄을 끊어놓아 감전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국 브라질에서도 여러 세대가 집을 잃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사태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사태피해

